

## 광주 18·전남 185곳 조합장 뽑는다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광주 51·전남 442명 출마  
오늘 오전 7시~오후 5시 투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늘 일제히 치러진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3개 조합의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4년 간 조합 살림을 이끌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선거 열기와 지역 농·수·임업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13일 광주에서는 16개 농·축협, 1개 수협, 1개 산림조합 등 모두 18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지난달 26~27일 52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1명이 등록 무효 처리됐다. 최종 후보는 51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이다. 광주농협에 7명이 출마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하남농협과 광주축협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광주지역 선거인 수는 농협 2만191명, 수협 360명, 산림조합 5013명 등 2만 5564명이다. 투표소는 각 조합 사무실, 북구청 회의실, 동 주민센터 등 모두 19곳에 설치되며 개표소는 광주여대 체육관 등 5곳에서 운영된다.

전남에서는 145개 농협과 19개 수협, 21개 산림조합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달 26~27일 446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사퇴하고 1명은 등록 무효 처리됨에 따라 최종 후보자는 442명, 평균 경쟁률은 2.4대 1을 기록하고 있다. 6명이 출마한 나주 마한농협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24개 농협, 3개 수협, 2개 산림조합 등 29곳에서는 단독 출마한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고흥 풍양농협에서는 지점장 출신 박미희씨가 광주·전남지역 유일



투표소 설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 관계자들이 광주시광산구 수완동 비아호텔 본점 3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한 여성후보자로 출마했다.

전남지역 선거인 수는 무투표 조합을 제외하고 농협 22만7111명, 수협 3만5934명, 산림조합 7만1480명 등 모두 33만 4525명이다. 각 조합 사무실, 읍·면·동 복지센터, 체육관 등 모두 253개 투표소가 설치된다. 특히, 전남은 섬이 많은 탓에 순회투표도 진행됐다. 여수와 신안 섬 지역에서는 지난 7~9일 순회투표가 진행, 여수에서는 6개 투표소에서 974명 중 658명(67.6%), 신안에서는 11곳에서 1075명 중 733명(68.2%)이 투표해 총 2049명 중 10391명(67.9%)이 투표를 마쳤다. 개표소는 각 시·군에 설치했으며 여수(1), 영

광(1), 신안(3) 등 섬 투표소에서는 개표도 동시에 이뤄진다.

또 12일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1건, 이첩 2건, 경고 10건 등 모두 20건 조치가 있었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 당시 10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달리 전남에서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등이 지난 11일 기준 고발 16건, 수사 의뢰 2건, 이첩 2건, 경고 39건 등 모두 59건 있었다. 제1회 선거와 비교해 107건에서 44.9%(48건)가 줄어든 셈이다.

한편, 투표 시간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등

록된 자신의 정보와 일치하는 신분증을 갖고 해당 조합이 관할하는 지역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 5시를 넘긴 경우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또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중복 조합원인 경우 자신이 가입한 조합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할 때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해야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기표소에서 나온 뒤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도 무효표가 된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시장·전남지사·국방장관 첫 회동 광주 군공항 신속 이전 의견 조율했다 선 후보지 선정 후 지역 대응 방식 추진 가능성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광주 군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방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2일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국방부장관 등 핵심 인사 3명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비 후보지를 서둘러 선정할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요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전 대상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국방부 장관을 함께 만나 등 공동대처에 나서면서 향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지역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선 이전 후보지 선정 후 지역 대응’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6년 연속 증가 월 광주 26만2천원·전남 19만원

서울 41만1000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다.

광주에서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8년 26만2000원으로 2017년 24만5000원보다 6.7%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17년 68.7%에서 2018년 69.4%로 0.8%p 상승했다.

전남은 2018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19만원으로 2017년 15만8000원보다 20.6%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2017년 57%이던 것이 2018년 61.5%로 4.5%p 올랐다.

사·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41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1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79.9%, 세종 77.9%, 경기 76.1%, 대전 73.8%, 대구 73.7%, 울산 73.3% 순이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6만3000원(3.7% ↑), 중학생 31만2000원(7.1% ↑), 고등학생 32만1000원(12.8% ↑)이었다.

/김현호 기자 khk@k-연합뉴스

## 나경원 ‘말폭탄’ 정치권이 ‘발각’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에 靑·민주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당장,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예

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레드 콤플렉스거나 아닌 탄핵 콤플렉스에 빠졌다”(윤호중 사무총장), “대기부 부대 수준의 방언”(설훈 최고위원)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

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도 잇달아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청와대도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한국 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HNT 하나투어**

봄에가기 **2019** 딱 좋은!

# 여행백서

무안공항 출발 모여라!

靑주일본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드림샵 광주충장점  
**062) 228-1199**

중국/홍콩/러시아	일본	동남아/대만
<p><b>신규취항</b></p> <p><b>홍콩/마카오</b> 664,900원~ 홍콩/마카오 4월, 5월</p> <p><b>신규취항</b></p> <p><b>블라디보스톡</b> 649,000원~ 블라디보스톡 4월, 5월</p>	<p><b>신규취항</b></p> <p><b>도쿄</b> 799,300원~ 도쿄 4월</p> <p><b>신규취항</b></p> <p><b>오사카</b> 870,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월</p>	<p><b>보라카이</b> 580,000원~ 보라카이 4월, 5월 아질리아</p> <p><b>세부</b> 548,000원~ 세부 5월, 6월 슬슬레리조트</p> <p><b>다낭</b> 772,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월</p>
<p><b>상해</b> 329,000원~ 상해/항주/주자카 4월, 5월</p> <p><b>상해/장가계</b> 1,190,000원~ 상해/장가계/웨이하이 4월, 5월</p>	<p><b>기타큐슈</b> 659,000원~ 기타큐슈/후쿠오카 4월, 5월</p> <p><b>모이타</b> 689,000원~ 모이타/후쿠오카 3월, 4월</p>	<p><b>대만</b> 702,000원~ 대만/지우펀/야류 4월</p> <p><b>방콕</b> 621,000원~ 방콕/파타야 5월, 6월</p> <p><b>코타키나발루</b> 708,000원~ 코타키나발루 5월, 6월</p>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일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증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료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은 도착비자요금을 상품가에 포함한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특별이전 사항에 따라 여행 일정 변경]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형)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교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발행일자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천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체 \*철수 권고 \*여행 금지